

칼의 원리를 배반하고

근대적 자아의 햇불을 든 남자가 부르는 선망과 환멸의 울음

장석주 | 시인

바람결에 탄핵 소추중인 대통령 노무현이 《칼의 노래》를 읽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여러 생각들이 어지럽게 가지를 뺀고 있을 게 분명한 착잡한 심경의 노무현 대통령은 왜 굳이 《칼의 노래》를 붙들고 있었던 것일까? 나는 그게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칼의 노래》를 읽는다. 박정희 대통령도 이순신을 엄청 좋아했다. 세종로 한복판에 이순신의 동상을 세우고 현충사를 성대하게 중건한 게 바로 박정희다. 어디 그뿐이랴! 《난중일기》 국보지정, 이순신 이야기의 교과서 등재, 현충사의 성역화, 현충사의 국민 참배와 수학여행 의무화, 탄신 기념일 제정, 국가 제사 등 박정희가 기획한 이순신 성우화는 국가적으로 백적지근하게 진행된 일종의 국민의식 개조사업의 일환이었다. 박정희가 이순신을 성우화한 것은 저의 존재 위에 이순신이 가진 구국 영웅의 이미지를 덧씌워 그것을 무단 전유하려는 무의식의 욕망 때문이다. 박정희의 이순신과 노무현의 이순신은 한 인물이되 다르다. 전자가 성화聖化된 이순신이라면, 후자는 생사와 존망의 위기 속에서 모멸과 치욕으로 살이 저머지는 자신의 처지를 차가운 이성으로 관조하는 인간 이순신이다. 《칼의 노래》 속에서 이순신은 말한다. “알 수 없었고 뵈 수 없었고 조준할 수 없었다. 뵈 수 없는 것들 앞에서, 나는 다만 적의 종자를 박멸하려 했다.” 이건 영웅의 입에서 발음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제 운명에 버거움을 느끼는 범부의 입에서나 나올 수 있는 말이다. 여기에는 무武를 천하에 펼쳐 난세를 치세로 평정하려는 대의는 없고, 오로지 제 운명의 버거움을 힘겹게 헤쳐나가는 자의 버거움만 강조되어 있다. 대타적 세계와의 되먹임의 고리가 끊긴 곳에 실존의 자리를 세우는 필경 허무주의자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만인대 일인의 전쟁에서 만인을 상대하는 일인은 고립감과, 그 고립감으로 체화된 실존적 허무를 피할 수 없는 까닭이다. 때때로 허무주의자는 생존상의 가치가 결여된 선택과 행동으로 나아간다. 왜 상대를 배야 하는지 모른 채 적을 베는 자의 도덕은 그 허무

《칼의 노래》(전2권) 김훈 지음 | 생각의나무 | 각권 값 7,500원

주의자의 무도덕이다. 이순신이 허무주의자라는 물증은 뚜렷하지 않다. 다만 이순신은 히테요시의 칼 끝과 조선 조정의 칼끝 사이에서 제 한줌 생존이 겨우 숨쉬고 있다는 투명한 자각을 저의 무도덕 위에 세울 뿐이다.

김훈의 《칼의 노래》는 이전의 이순신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소설이나 영화와는 크게 다르다. 김훈의 이순신은 인간 이상으로 비범하게 부풀려진 ‘성웅聖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실물대의 ‘인간’이다. 이순신의 인간됨은 몸을 고되게 부린 뒤에 나타나는 식은 땀과 저절로 흘러내리는 코피에서 풍부한 실감을 얻는다. 그것의 절정은 감각의 생생한 현존 속에서 보다 선명하게 나타난다. 전장에서 너무나 많은 시체들이 썩는 냄새에 멀미를 느낀 이순신은 포유류의 누린내를 감당하기 버거워하며 한동안 고기를 먹지 않는다. 세상에는 생을 버겁게 만드는 얼마나 많은 누린내들이 범람하는가! 이순신은 그 누린내들 속에 고립무원으로 내동댕이쳐 있다. 타자와 세계는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맡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기관에 밀려와 저의 있음을 증명해낸다. 감각기관들에 비비지는 그 물성에 의해 생물의 감각은 환하게 열린다. 특히 후각기관을 자극하는 온갖 냄새들은 이 소설 전편을 덮는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그 점은 두드러진다. “전선들이 다가오자 연기 냄새는 더욱 짙었다. 죽은 여친의 가랑이 사이에서 물결거리던 젖국 냄새와 죽은 면이 어렸을 때 찼던 푸른똥의 덜 삭은 젖냄새와 죽은 어머니의, 오래된 아궁이 같던 똥냄새가 내 마음 속에서 화약 냄새와 비벼졌다.” 오감에서 감각적 질료의 지각이 탄생한다. 아무것도 믿을 게 없고 의지할 게 없이 고립에 처한 인간에게 저의 오감은 인식의 세계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매개이자 의지처다.

이순신은 저의 바깥에서 출렁이며 밀려오는 죽음의 물결을 향해 칼을 겨누지만, 그것은 뵈 수 없는 적이다. 또한 그 적에 대한 적의의 근본은 모호하다. 더 무서운 것은 적의는 모호하되 피아彼我 간에



이 글을 쓴 장석주는

고려원 편집장을 거쳐 청하출판사 편집인, 발행인을 역임했고, 이후 계속해서 책 만드는 일을 해왔다. 청하출판사 시절에 계간 <현대

시세계>와 <현대예술비평>을 펴내며 기획과 편집을 맡았고 월간 <현대시>, 계간 <시인세계> 등에서 편집위원으로 일하며 신문과 잡지 등에 다양한 글을 기고했다.

— 현재 경희사이버대학교와 명지전문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다.

— <햇빛사냥> <완전주의자의 꿈> <그리운 나라> <새들은 황혼 속에 집을 짓는다>를 비롯해 많은 시집을 냈으며 독서일기 형식의 <강철로 된 책들>을 출간하기도 했다.

맡은 바 소임은 자명하다는 사실이다. 그 자명함의 전면에서 이순신은 삶이 그 근본으로 가진 모호한 관념과 추상 때문에 진저리를 친다. “임진년의 바다에서는 알 수 없는 일이 많았고, 지금도 역시 그러하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절박하게 내 몸을 조여오는 그 거대한 적의의 근본을 나는 알 수 없었다. 알 수 없었으나, 내 적이 나와 나의 함대를 향해 창검과 총포를 겨누는 한 나는 내 적의 적이였다.” 이순신이 느끼는 혼돈과 모호함은 저를 둘러싸고 있는 힘들의 예측불가성과 맹목성에서 비롯된다. 이순신의 실존은 그것들 속에 포박되어 있다. 그 포박 속에서 이순신은 알 수 없는 바깥의 힘과 의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압력 속에서 저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지대로 움직인다.

젊은 왜군 포로를 앞에 두고 신문하며 갈등할 때 이순신의 인간됨은 또다시 섬광처럼 드러난다. “내 속에서 나 아닌 내가 그렇게 소리치고 있었다. 아베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울음과 아베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울음이 내 몸 속에서 양쪽 다 울어지지 않았다. 몸 속 깊은 곳에서 징징징 같이 울었다.” 갈등은 사유하는 자의 몫이고 사유는 인간됨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칼은 인간의 사유에 따르지 않고 저의 타고난 바 숙명대로 움직인다. 칼의 움직임을 칼의 숙명으로 용납하지 않을 때 그 칼은 적이 되어 나를 벤다. 먼저 베지 않으면 제가 베이는 게 칼의 숭고한 운명이다. 칼은 피아와 선악을 분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칼이 따르는 강령은 무도덕이다. 칼은 베는 것으로 저의 소임을 다한다. 분별하는 것은 칼의 몫이 아니고 사유하는 인간의 몫이다. 칼을 든 자는 존망의 기로에서 사유를 가로질러 나아가는 칼의 무도덕을 비극으로 체화한다. 그 순간에 일어나는 사유는 잉여적인 것일 따름이며, 감정의 사치에 지나지 않는다. 이순신의 비극은 두 겹이다. 그 하나는 전쟁에 함몰된 자가 칼의 원리에 따르지 않고 사유의 원리에 제 삶을 비껴매려는 헛된 시도를 한 것이고, 그 두 번째는 너무 일찍 근대적 자

의 햇불을 들고 나아가려고 한 점이다. 따라서 이순신의 곤경은 자업자득이다. 제 생의 경영을 오로지 저의 책임 아래 두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순신은 명약관화한 그 곤경을 스스로 불러들인 셈이다. 이순신은 제가 선택한 곤경이 칼로 베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죽음을 선뜻 받음으로써 그 책임의 전부를 제 실존으로 수납한다.

《칼의 노래》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이순신의 모습은 사유하는 인간이다. 이순신은 칼에 제 운명을 기대면서 그 칼과 길항하는 사유에 깊이 침윤됨으로써 과국에 필연의 중력을 부여한다. 이순신은 임금의 명령에 따르되 맹목적인 종속은 거부한다. 그것은 주체의 선택과 행동의 원리를 타자에게서 구하지 않고 자율성이라는 규범의 확대를 통해 실현하려는 근대인의 자의에 합당한 자의식의 발현이다. 전근대의 세계에서 근대인의 자의식으로 살려지는 자는 당대 권력에 대한 반동으로 튕겨나간다. 임금이 이순신에게 수군통제사를 맡기면서도 끝까지 신임하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다. 조선 조정도 이순신이 충충의 이데올로기에 무조건적으로 복무하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해 봉건 왕정제 시대의 신하로서는 불충한 근대적 자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걸 꿰뚫어 본 것이다. 이런 이순신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소통할 수 없는 세계 속에서 저의 실존적 의미를 저의 사유의 힘만으로 일구어내려는 근대적 이성의 탄생을 엿본다. 김훈의 《칼의 노래》는 너무 일찍 근대적 자의식을 품은 자가 부르는 절망과 환멸의 노래다. 아니다. 김훈의 바로크적 과잉을 지양하는 비장식적인 문체 속에서 절망과 환멸은 날줄과 씨줄로 소설이라는 피륙을 짠다. 그렇게 짠 피륙 속에서 울려나오는 것은 노래가 아니라 울음이다. 실존적 갱신의 한계에 부닥쳐 절망과 환멸로써 성대를 울리는 것은 노래가 아니라 울음이라는 게 논리적으로도 맞다. 그러므로 이 소설은 “노래”가 아니라 “울음”으로 읽혀야 마땅하다”

